

4학년 4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차례

4학년 4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꿈 • 박지안

마음 • 나예진

실내화 • 백주이

계절이 바뀌는 이유 • 김도훈

초록 숨바꼭질을 읽고 • 강승원

사탕 • 문승후

여름 • 홍연우

마시멜로 • 이시현

구름 • 박민솔

너를 만나 행복했어 • 이소윤

물통 • 김서준

만두 • 이은서

눈사람 • 최민아

날씨는 정말 개구쟁이 • 황시원

오빠 • 사유빈

가족 • 전수윤

별이의 일상 • 이서윤

들판 • 임서준

개똥이의 학교 생활 • 김정후

내가 좋아하는 노래 • 정이든

비 • 심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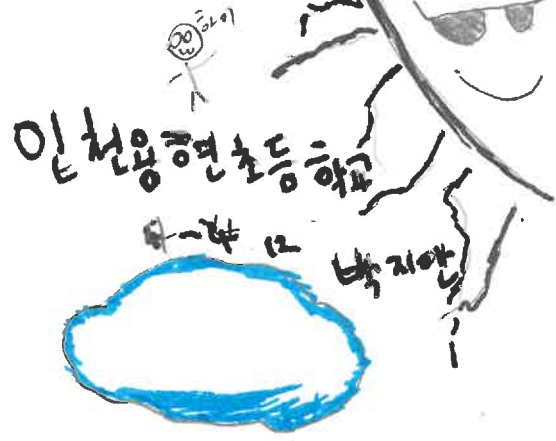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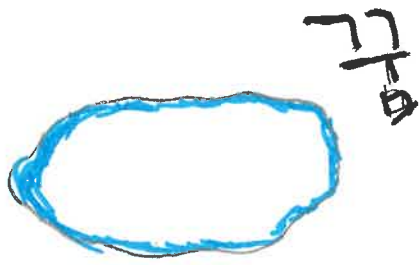
비가 오는 날 • 도민준

불쌍한 풀 • 김도희

똥 • 조연후

시 • 박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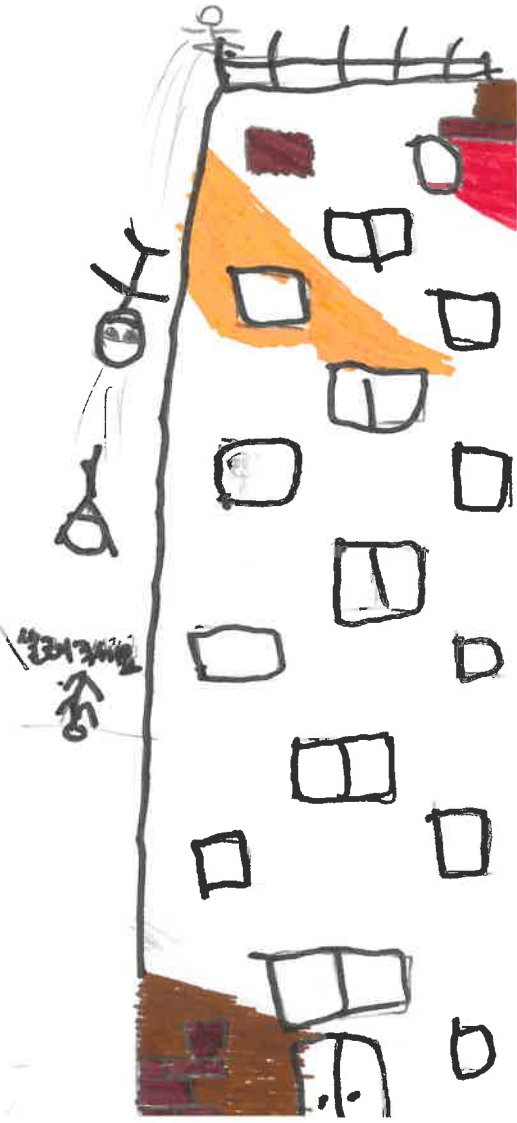
함박눈 • 이시윤



어느날
꿈을 꾸었다
날아다니는 꿈
옥상에서 점프도해보고
비행기 날개에도
앉아 보았다
죽을 뻔~



공중에서
명상도
해보았다
그러던 그때
지안! 일어나~
엄마가 불러
일어나니까
재미있는데...



<마음>

인천 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7번
4예진

어느 한 학생은 학교를 간다.

신나는 마음이다. =

한편은 다른 친구랑만 놀고있다

슬프다. =

나만 실험을 못했어

괴롭다. =

급식실에서 밥먹고 가는데 친구가 먼저 갔다.

투혼 마음인지 모르나. =

이웃에게 속죄한다

중다. =

공부해서도 간다

힘들다. =

수업을 간다

너무나 좋아 =

숙제를 한다.

힘들다. =

밥먹고 씻고 잠이 든다.

오늘도 고생했다. =

하늘



심내와

용현초 4학년 반
배구

복도를 생~뛰더니 #
급식실로 우다닥! 뛰니

심내와가 아는 말 *

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계절이 바뀌는 이유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로 4-4 김도환 (2019)



!넌 내내 낮의 길이가 같은건 아니야!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즈음이면 벌써 어둠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낮씨도 조금씩 줄어든다! 낮이 조금 길어지면 여름이 되면 더 길어지고 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잠자리도 늦게도 밝아진다! 하지만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낮씨도 더워진다!



초록 습바꼭질시용 워크

인천광역시 동동 학교
4학년 4반
강승원

초록 습바꼭질

초원과 도마뱀을 그려서
 둘 다 초록 물감으로 그려야 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만 이 초록이 저 초록으로 넘어가서
 초원 속에 있던 도마뱀이 사라져 버렸어
 "어? 아까까지 분명 여기 있었었는데 어디 갔지?"
 도마뱀 옆에 있던 개구리 한마리 어리둥절
 개구리 개구리
 나는 초록 물감 장갑 뽕뽕 뽕뽕을 남김없이
 개구리를 노리는 중이야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그림을 내밀며
 눈 밝은 개구리한테 도마뱀, 개구리, 나 뽕뽕, 뽕뽕, 뽕뽕
 뽕뽕 뽕뽕 해 볼까?
 초록은 초록이끼 칠까? 너무 감동시켜줘
 습바꼭질에서 아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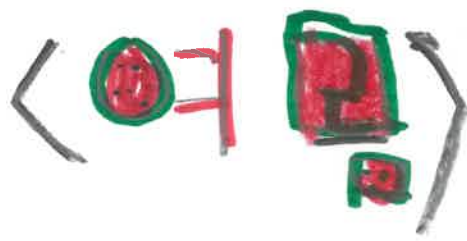
<사탕>

인천 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문승후

맛있는 사탕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사탕

개를 먹고 2개 3개, 4개
계속 먹게 되고 자꾸
생각나는 사탕
또 먹고 싶은 맛





인천 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홍연우

여름은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바닷가도 햇빛 때문인지

너무 덥다. 그럼 어디에 갈까?



그럼 제국에 한번 가볼까?

제국은 나무 덕에 시원하다.

또 후식으로 과일도 먹으면

더운게 싹~ 날라간다.

다음에도 가자





<마시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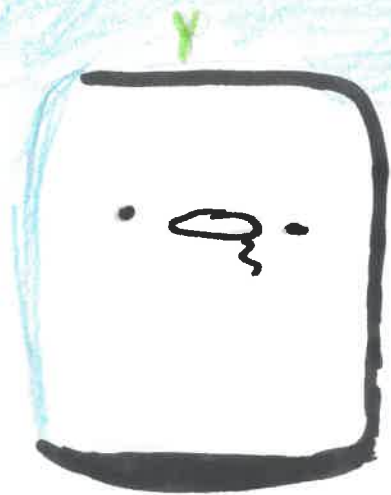
푹신푹신했던 마시멜로
하얀색인 마시멜로
먹으면 달고 생김새는
술 같은 모양은
넉넉하고 맛있는
마시멜로 ♪



인천용현 초등학교
4학년4반
이서현



응애?



< 구름 ☁️ >

용현초등학교

4-4 박민솔

둥실둥실 두둥실

몽게구름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아무 생각 없이

보게되는 구름 솜사탕 처럼

달고 폭신했것 같은 구름 자꾸

누워보고 싶은 걸까. 구름은 좋겠다

아무생각없이 가만히 하늘에

떠있으면 되니까. ☁️



< 너를 만나 행복했어 >

강아지
식당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4반
이소윤



너만나 행복했어
 책 속이 는 고향이인 너를,
 정말 좋아했는데! 고향이 가
 이렇게 변한 때 나는 것도 모르고
 이나쁜 주인이 고향이.

OFF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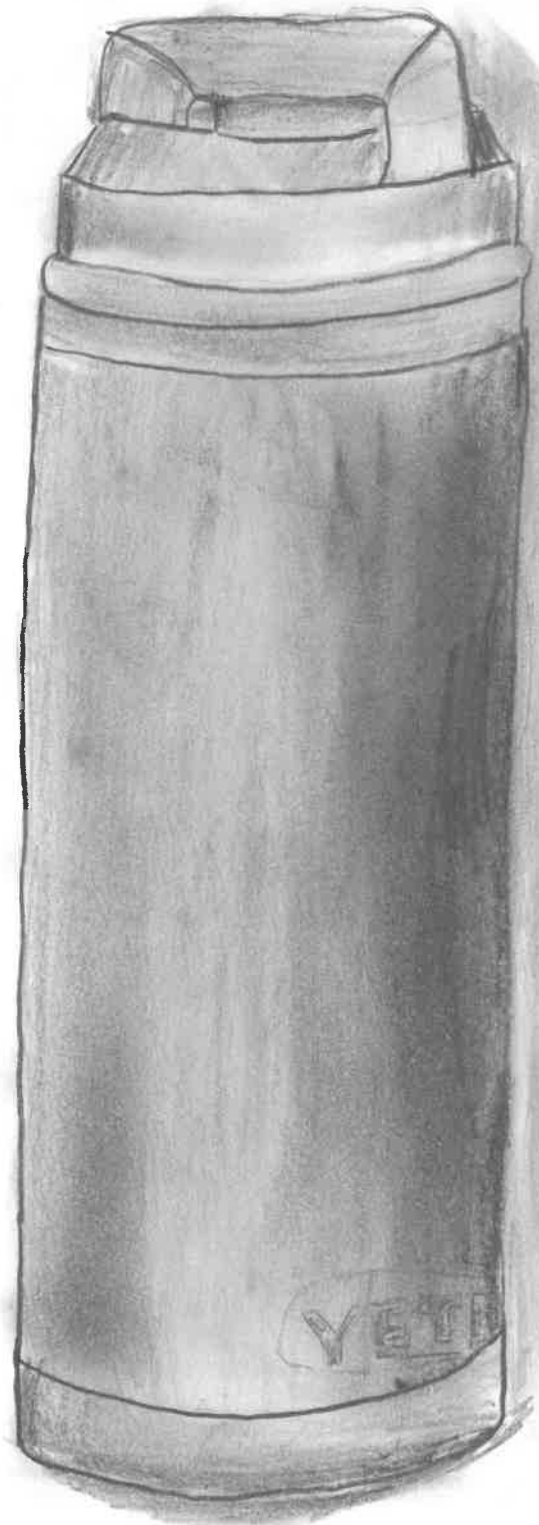
<고양이 42>

<물 통>

4-4 김서준
용현초 5번

내가 쓰는 물통
내가 물을 떠 마시는
물통
내가 즐거워 할 때
함께 있는 물통
내가 꼭 물통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이 물통이랑
있어서 다행이다



<만두>

인천 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문서



촉촉한 물만두
바삭바삭 군만두
쫄쫄쫄쫄 찜만두

아무 것도 안 찜어도 맛있는 찜만두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물만두
탕수육 소스에 찍어먹고 짜장소스에 찍어먹어도
좋은 군간 두

나는 다 좋다

< 눈사람 >

인천용현 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름: 최민아



겨울이 되어 눈이 솔솔솔 내린다 그러면
동생과 함께 나가 눈을 쓱쓱 모은다 모은 눈을 돌돌돌돌
굴리켜주며 합친다. 계속 하다보면 둥글둥글
몸통이 완성도났다. 이제 머리도 계속 돌돌돌돌 만들면
둥글둥글 머리가 완성도났다. 이제 돌을 합치고
길쭉한 나무 막대 2개를 쓱쓱 모으고 이제 양쪽에
딱딱딱딱 꽂아준다. 그리고 조금 비비뽀뽀뽀한
뽀뽀이도 찾아 머리에 또르르르르 붙여 얼굴까지
완성하고 내일 오면 누가 백세버린지 안았는지?
생각하며 집에 간다.

<날씨는 정말 개구쟁이>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4반 황시윤

<날씨는 정말 개구쟁이>

날씨는 정말 개구쟁이 **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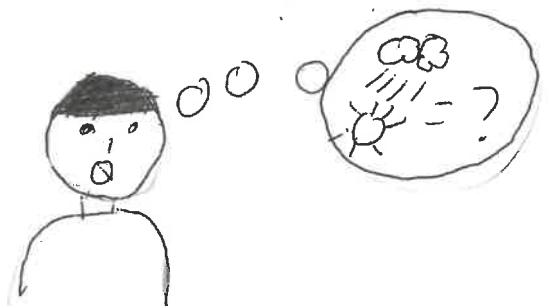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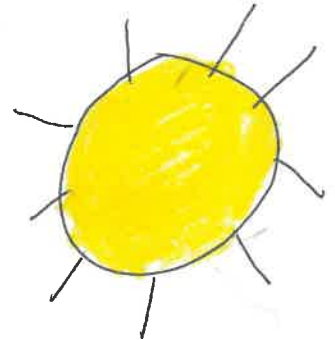
올 것 같아 우산을 들고 가면

하가 짹짹 **하가 짹짹**

해서 우산을 안 가져 갔지만

비가 주룩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 가면 친구우산을
같이 쓰고 오네



< 외박 >

안천영원 초등학교
44 사유빈

< 외박 >

외박. 외박
내외박
외박은 오늘도 장난을 치네

외박 외박
내외박

외박은 오늘도
내 외박 연을 보고 웃네.

외박 외박

내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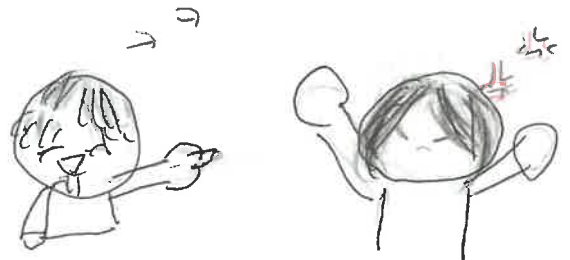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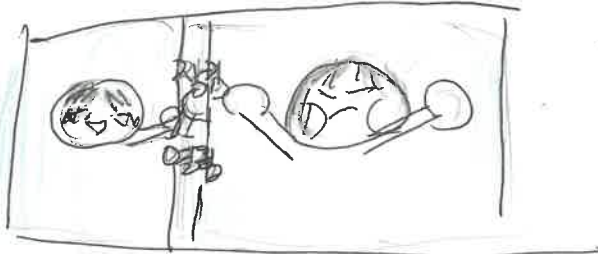
오늘은 외박 생일이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오늘도 외박이 장난 치네

외박 외박

나의 친구들 ↓ 내외박.



<가족>

인천 용현 초등학교
4-4반
이름: 전수윤

가족은 소중한 존재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돼

가족이 있으면 듣든지

형제는 아무리 싸워도 얹음 쓸줄하지

고민이 있을때는 가족한테 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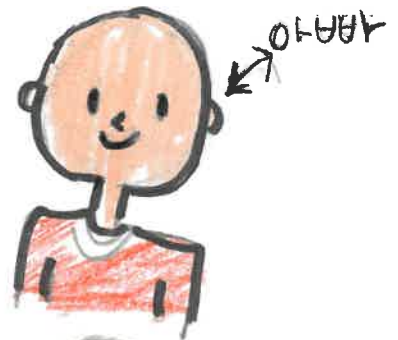
근데 가족이 없음을 속여다가
답답 하지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존재 라는게야.

그리고 화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 해봐.



<제목: 별이의 일상>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4반
이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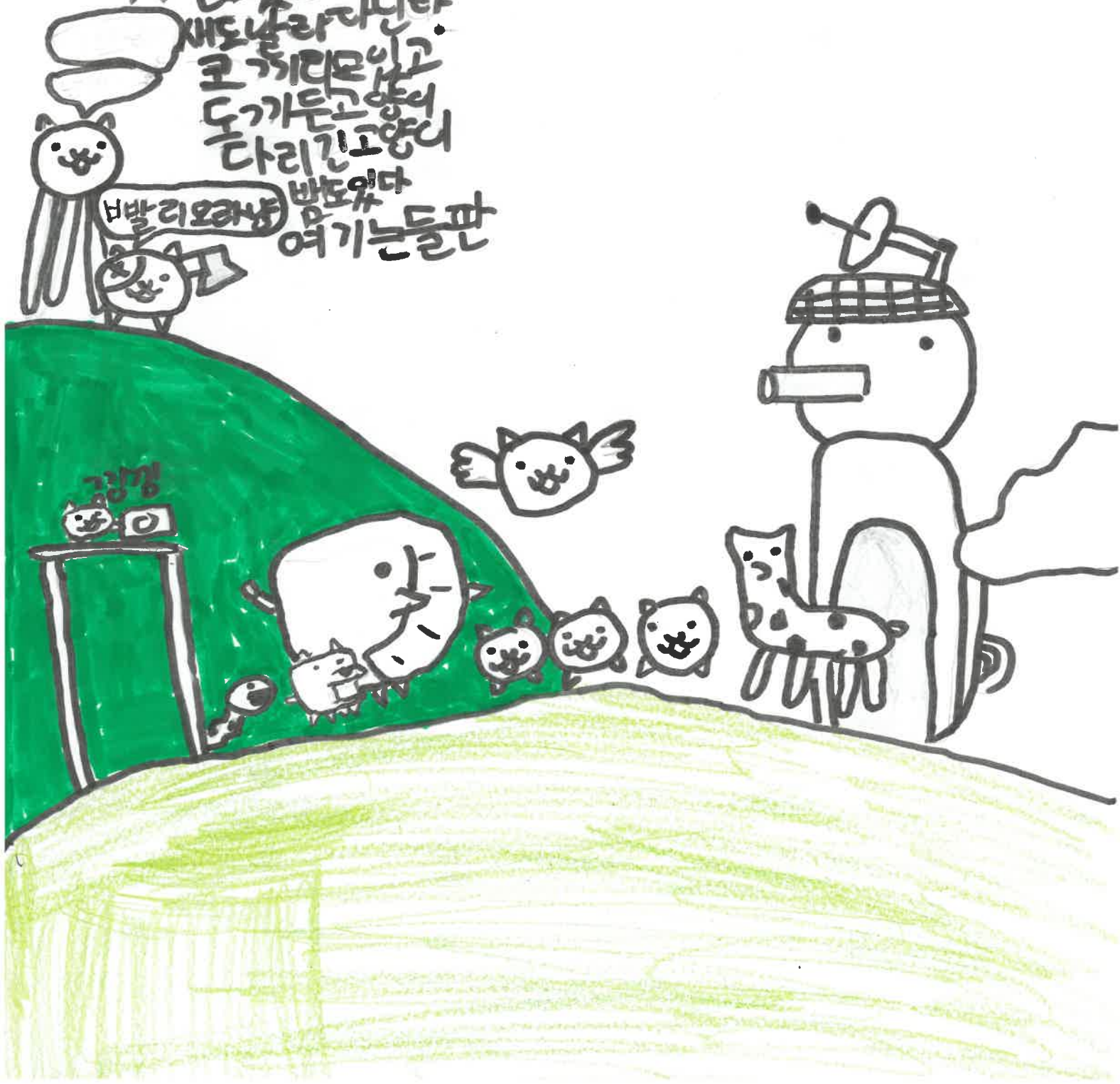


별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밥을 먹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등교 합니다.
반에 도착해 친구들과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고 1교시 수학을 준비 합니다.
수학이 끝 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수업종이 울려줍니다. 2교시는 국어를 준비합니다. 국어가 끝 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3교시... 4교시... 5교시가 끝 나고
점심먹고 반에 돌아와 청소를 하고 집에 갑니다.

<돌판>

인천광역시(임시준)
4-4 차음

해빛이 쨍쨍
돌판에 나자오니
고양이 줄기 다니고
강아지 멍멍
기린도 이따
새도 날라 다닌다
코끼리 모이고
도끼 들고 양이
다리 긴 고양이
반도 있다
여기는 돌판





오늘도 잠을 자는 개똥이 양동학교 4학년
생활하는 시간에 개똥을 먹어



또 잠을 자는 다. 미술시간에
개똥이 그림을 다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가져가 죽이 먹습니다 5학년
모자 친구들이라 죽이를 했습니다 개똥이
먹을 것입니다 애들이 5학년이 개똥
이 먹다 새! 라고 했습니다 개똥이
선생님 말을 했습니다 개똥이



개똥이 양동학교 4학년 생활하는
시간에 개똥을 먹어
수업시간에 개똥이 먹다 새! 라고
했습니다 개똥이 수다를 떠서
선생님 말을 했습니다 개똥이



개똥이 먹다 새! 페널티
그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개똥이 먹다 새!

< 내가 좋아하는 노래 >

나는 음악을 잘 듣는다.
리코더는 못 불지만
노래는 잘 부른다.

인천 송원초등학교
4학년 나반
정이든

그중에서 좋아하는 노래는
조선의 남자다.

최수호가 부른 노래로
엄마가 최수호를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조선의 남자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박수갈채를 해주었다.
나는 자랑스럽다.



어느 날 비가 툭툭 툭툭 내렸습니 다어? 비가오네?? 나
 탕에 빠르거 집으로 달려 왔습니 다. 아... 다 젖었네? 나 는 우산 이 없던
 아 이이 두 주방을 보았 습니 다 그때였습니 다! 밖에서 첫 옷을 갈
 가 찼습니 다! 짜작이야, 비는 점점 거세지고, 나 는 등바퀴
 장을 보았 습니 다. 오! 라면이다! 나 는 라면 을 팔이로 찼어
 을 찢고 돌아왔 습니 다 라면 을 먹은 뒤 나 는 잘 준 비를 하고
 잠에 들었 습니 다.

< 비가 오는 날 >

인 천용현 초등학교
4학년4반
도민준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나는 매일같이
집에서
쉬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우르르 쿵쿵
하며
비가 온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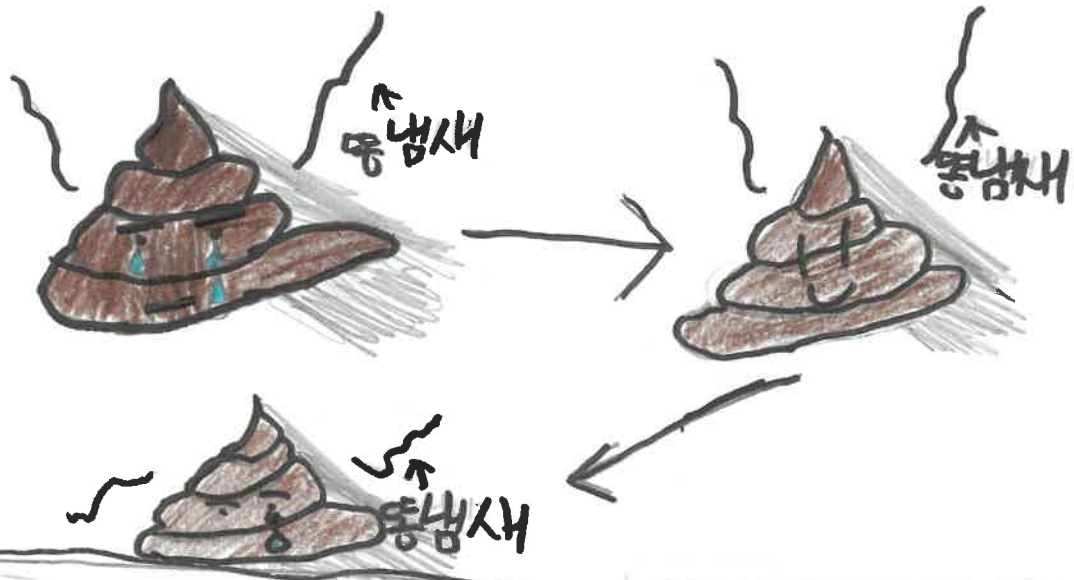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나는 똑똑
눈물이 솟아진다. 친구들은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이자리에서 태어난 걸까? 내가 똑똑해서
감수도 없고 그때 친구가 태어났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 동 >

인천 봉천초등학교
4-4
조연후



나는 인간이 썩은 똥이다. 남들보다
쓰레기똥이다. 근데 어쨌든 일인지 내가 귀한
똥 대접을 받았다. 그건 꿀탕 먹이기 위한 것
이었다.

시

전통에 쉽게 알수있다.

인천광역시중학교 4학년 4반 박유주

사회는 대한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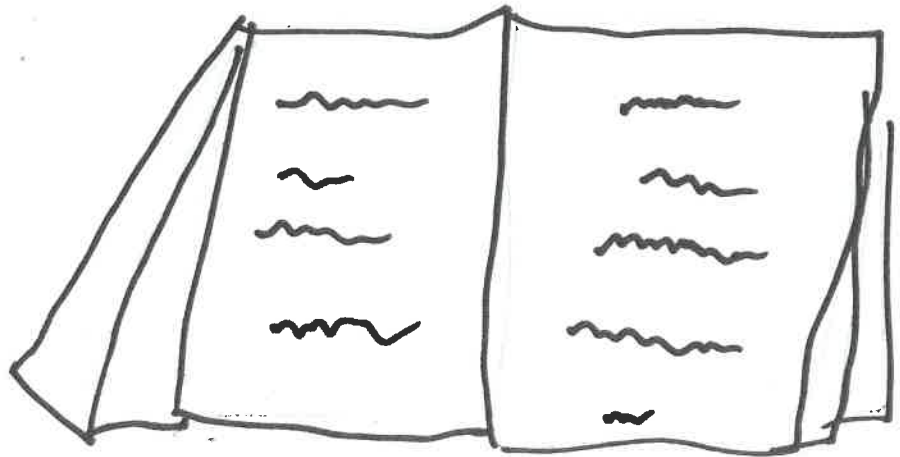
쉽게 알수있다.

차근차근 알듯 문화들
쉽게쉽게 알아보면서.

모든 문화들은

사회에서 더 쉽게
배운다.

전통



인천 봉현 초등학교
4-418이시윤

함박눈이 내리는 날
눈이 오는지 궁금해
창문을 열어본다

너를 향하
나의 그리움도
쏟아 지는 함박눈이다

